

도시주부의 자산형성 기여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tribution Rate to Matrimonial Wealth Accumulation of Urban Housewives

이 재 희
고신대학교 가정관리학과

Dept. of Home Management, Kosin Univ.

Lee, Jae Hee

Abstract

To determine contribution rate to matrimonial wealth accumulation of urban housewives, a survey was made toward them by using questionnaires from September 1994 to October 1994. Three hundred-eighteen housewives were randomly selected from Pusan area.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Average contributing rate to household income was 65.7 percent for husbands and 34.3 percent for wives. The contribution rates evaluated by themselves of wives were 38.1 percent for the house property; 36.5 percent for the savings; 9.6 percent for the real estate; 5.2 percent for the land; 9.3 percent for the stocks & bonds; and 9.2 percent for others. It is suggested that 50 percent and over 50 percent of matrimonial properties have to be recognized to the wives who changed their occupations to house work and employed wives, respectively.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인간은 신체적으로 미분화되고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 보호되고 양육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양육의 필요성은 가정을 통해서 가장 원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정속에서 만이 비인간적, 추상적, 관료적, 기계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인간적, 애정적인 관계 내지는 보호를 구할 수 있다(문숙재, 1986).

그러나 이런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가정의 안전기능을 유지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욕구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가정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가정내의 인적, 물적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조직해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가정관리 능력이 중요하다. 특히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동능력의 상실 등 위기에 부딪칠 때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를 결정하는데는 자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초·중년기에 소득이 소비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

을 자산형태로 저장 하였다가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는 중·노년기에 현금화하여 사용하면 보다 안정된 생활이 영위될 수 있다.

한 가정의 경제를 두고 볼 때 수입을 위한 남편의 취업노동이나 주부의 가정생산 및 합리적인 소비를 통한 실질수입은 가정의 자산형성에 동등한 기여를 한다고 본다. 취업을 하고 있는 주부의 경우는 가사노동 외에 시장노동에 의한 소득으로 자산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부의 기여도는 동등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최근(1990) 개정된 민법 제 839조 2항에 의하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여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액수나 방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있으며 실질적인 근거

불충분으로 인해 가사노동과 취업노동간의 별이 나타나고 있다. 판매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나 가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주부의 경우는 아내의 수입, 협력정도, 가사노동 공헌도 등을 참작하여 50퍼센트 인정된 예도 있으며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대체로 30 -40 퍼센트로 인정되었다. 이는 한 가정내에서 취업노동에 종사하는 남편이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아내보다 가정유지 및 재산형성에 더 많이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며 분업적인 현대 가정생활 개념에도 위배된다(문숙재·정영금, 1993). 또한 가정의 경제는 가족생활의 변화와 물가나 임금, 금융 같은 경제 및 사회정책, 교육 등 가정적·사회적 요소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주부의 단순한 가사노동 뿐 아니라 재무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화폐, 자산 등의 경제적자원과 인적자원을 투입한 가정의 독특한 가계투자는 그 가계의 재정적 안정을 이루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가정의 재정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계획은 자산증식을 위한 계획행동이며 미래의 효용창출을 위해 현재의 소비를 절제하는 적절한 자원분배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김순미, 1987). 이러한 자원분배의 기능은 가정관리의 중요한 기능으로써 실질수입을 높이는 역할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자산형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이며 구체적인 자산형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 가정의 자산상태를 조사해 보고 그 자산에 대한 주부자신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의 자산은 대부분 수입노동을 하는 남편(가장)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문제가 발생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수입노동을 한 전업주부의 경우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목적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의한 실질수입이 취업주부의 취업노동이나 남편의 취업노동에 못지 않게 가정의 자산형성에 기여함을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살펴보고 실제로 가정의 자산상태를 결혼당시와 현재의 상태를 비교 분석하여 본다. 또한 자산형성에 대한 주부의 기여

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주부자신이 주관적으로 평가해 봄으로써 혼인해소시 재산을 분할하는데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및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동산은 지상의 정착물로서 가족의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택과 토지를 제외한 재산으로 상가나 임대물 목적으로 한 건물을 의미한다.

또한 표본선정에 있어 조사보조원의 주거지역(부산)을 중심으로 무작위 추출되었기 때문에 일반화 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II.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1.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경제학에서 생산이란 '인간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장 전형적인 생산은 어떤 재화를 변형 및 개선 또는 가공하여 그것을 전과는 용도가 다른 새로운 재화로 만드는 행위와 그 재화의 교환, 운반, 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재화뿐 아니라 이발, 교육, 자동차운전 등 서비스를 창출하는 행위도 생산에 포함된다(조순, 1993). 따라서 가사노동은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정내의 자원을 잘 분배하고 조직하는 정신적, 신체적 활동과 재화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도록 정비해주는 과정으로서 상품의 사용가치 또는 효용가치를 부가 내지는 창출하기 때문에 생활활동에 속하며 단순히 재화와 용역을 사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비활동과는 다르다. Reid(1934)는 최초로 가사노동을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생산으로 개념화 하였고 Becker(1976)는 가정이 소비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구입한 재화에 인적자본과 시간을 투입하여 최종 소비재를 생산함으로써 궁극적인 만족을 얻는다고 주장하여 가사노동이 생활활동임을 밝혔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사노동은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이를 사용하는 노동력의 상품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남편의 노동력의 가치는 실제로 가사노동에 의해 부가된 가

를 포함하므로 남편의 직업노동을 통한 소득이 축적되어 형성된 가계재산에는 주부의 가사노동을 통한 기여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김희숙·이기영·최은숙, 1992).

즉 가정에서 주부에 의해 가사노동이 수행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그 일을 대행시키기 위해 비용이 지출될 것이므로 주부는 직접 소득을 벌지 않지만 가사노동을 통해 가정소득의 지출을 방지하게 되어 실질수입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맞벌이 부부의 소득상태는 전업주부 가정의 2배가 아니라 3분의1 정도의 증가만이 될 뿐이다(Eastwood 1986). 문숙재(1991)의 가사노동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남편이 주부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명상시에는 들이나 공기처럼 잘 인식되지 않다가 가사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회적 활동에 지장을 받을 때 비로소 꼭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일로 그 가치를 인식하게 되며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주부가 남편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부의 가사노동을 통한 가정의 재산증식 기여는 인정하면서 이것을 가사노동의 생산적인 가치로 연결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사노동 및 가사노동의 수행자인 주부의 역할이 갖는 가치를 과소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과 측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가사노동을 대행시키기 위해 누군가를 고용한 후 그 고용비용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상실비용 측면에서 계산하는 방법과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유급의 시장노동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의 손실을 평가하는 상실임금 측면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상실비용적 측면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전문가 대체비용법과 종합적 대체비용법이 있는데 전문가 대체비용법은 가사노동을 여러가지 작업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에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 후 해당 대체 직종의 시장임금을 적용시켜 전체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고 종합적 대체비용법은 주부가 행하는 가사노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상응할만한 한명의 직업인을 가정에서 고용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보수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상실임금적 측면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기회비

용법, 요구임금 방법, 주관적 평가방법이 있는데 기회비용법은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에서 벌어들일 수 있다고 기대하는 임금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며 요구임금 방법은 전업주부로 하여금 가사노동보다 시장노동에 진입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주관적 평가 방법은 주부들 자신이 가사노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는지 주부가 스스로 평가한 화폐적 가치를 말한다(김정희, 1993).

김애실(1985)의 서울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전문직업인 대체로 평가한 가치는 271,933원이며 종합적 대체비용법으로써 가정부로 환산했을 때 170,669원, 가정부와 관리자로 대체한 경우는 393,222원이며 기회비용법으로 계산하였을 때 371,094원, 주관적 평가방법은 461,207원으로 주관적 평가방법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최명숙(1986)은 대구지역의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직업인 대체비용법이 251,799원, 종합적 대체비용법은 182,813원, 기회비용법은 397,864원, 주관적 평가방법 298,380원으로 기회비용법이 제일 높았다.

정영금(1989)의 서울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요구임금 방법에 의한 가치는 월평균 729,201원, 전문가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치는 538,438원, 기회비용법에 의한 가치는 529,941원, 주관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치는 502,391원, 종합적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치는 420,469원으로 요구임금 방법이 가장 높게 계산되었다.

1988년을 기준으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산출한 결과 전문가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치는 346,105원, 종합적 대체비용법 중 파출부대체의 경우는 238,331원, 가정부 대체의 경우 399,250원, 총관리자 대체의 경우는 735,277원, 가정부와 관리자 2인 대체의 경우는 469,232원으로 평가되었으며 기회비용법에 의한 가치는 417,499원이었고 요구임금 방법에 의한 가치는 343,819원, 주부의 주관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치는 379,561원으로 총관리자 대체의 경우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김선희, 1991).

문숙재·정영금(1991)은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전문가 대체비용법으로 계산한 결과 한 달

에 676,847원, 종합적 대체비용법은 497,996원으로 나타났으며 기회비용법으로 계산한 결과는 616,683원, 요구임금 방법은 707,601원, 주관적으로 평가한 방법은 540,366원으로 요구임금 방법이 제일 높았다.

문숙재(1991) 역시 가사노동의 화폐가치를 주관적 평가방법의 경우 565,365원, 종합적 대체비용법의 경우 489,954원, 요구임금 방법의 경우 712,480원으로 요구임금 방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이 가사노동의 가치는 학자에 따라, 측정방법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나타났지만 요구임금 방법이 대체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보아 가사노동의 가치를 주부 스스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만큼 가정의 지출을 줄이는 효과로써 실질수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화폐적 가치가 실질수입으로 매월 가정에 유입되기 때문에 가정의 자산형성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김정희(1995)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부들의 가사노동의 가치가 국민 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2 ~ 43%, 임금으로 환산하면 53만 5천원 ~ 76만 3천원이 된다고 밝혀 남편들의 사회노동에 비해 생산성이 그리 떨어지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조선일보, 5. 8).

2. 자산형성에 대한 선행연구

우리말 큰사전에 의하면 자산(assets, property)이란 개인이나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건물, 기계, 기구, 금전 등을 말하며 소득을 축적한 것,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유가물로 부채의 담보로 할 수 있는 것(신기철, 1985) 이라고 정의했으며, 특정한 회계주체의 소유에 속하고 그 주체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유형·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따라서 현금과 같은 지불수단, 상품이나 건물 같은 유형의 재화, 외상매출금이나 특허권 같은 무형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고려대학교, 1976). 이러한 자산들은 수익성과 위험에 기초하여 위험자산(Risky assets)과 안전자산(Safe assets)으로 구분하는데 원금 상환과 일정한 이자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국공채나 은행저축은 안전자산이고 원금상환이 없이 배당금 지급도 기업의 이윤 여부에 좌우되

는 주식이나 회사채권은 위험자산이라 한다(Bernstein, 1983; 정은주·문숙재, 1992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결혼초기 가족은 축적한 자산이 없으므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꺼리며 기본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는 점차 수익이 높은 위험자산을 선택하다가 노년기가 되면 다시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선택하며 소득이 높고 안정적일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높고 위험에 대한 태도로서 위험회피형은 안전자산을 선택하고 위험추구형 가계는 위험회피형 가계보다 더 많은 위험자산 선택을 한다. 그리고 가계의 총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합하는 것으로 금융자산은 은행저축, 주식, 투자신탁, 보험, 국공채, 일반사채, 회사채, 계 등을 말하며 실물자산은 주택, 건물, 토지, 콘도미니엄 등의 부동산과 골동품, 귀금속, 자동차 등을 포함한다. 김순미(1987)는 금융자산 선택행동을 금융자산 예측행동, 효율적 Portfolio, 최적 Portfolio 선택행동으로 분류하여 서울과 대전지역을 조사한 결과 금융자산 선택행동의 능력은 서울지역이 대전지역보다 높게 나타났고 금융자산 선택행동에 영향을 주는 준거집단은 가족보다는 전문가 및 금융기관 관련자, 마스크 등이며 금융자산의 선택동기는 수익성과 편의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예측행동에서는 결혼년수가 짧을 수록, 재산이 많을 수록, 미래에 대한 예견이 긍정적일 수록,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잘 인지할 수록, 준거집단의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록 예측행동수준이 높았다고 보고했다.

한편 자산의 동의어로 재산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 유지된 재산은 3가지로 분류한다. 하나는 1종재산으로 재산취득에 관해 배우자의 협력이 없었던 것으로서 부부가 혼인전부터 각각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재산으로서 특유재산을 의미하고, 2종재산은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등과 같은 공유재산이며, 3종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부동산, 예금, 주식 등으로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3종에 해당이 되며 특히 남성지배적 사상이 지배적이어서 가정의 재산은 남편의 재산으로 생각

하며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이혼시 명의권자의 소유가 되고 있다(김영갑, 1991). 따라서 개정 법에서는 양성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제도를 신설하므로써 주부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나 재산분할 판례에 의하면 결혼 후 가사노동에만 전념해 온 아내의 경우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30~40%로 인정하고 있어 여전히 가사노동을 직업노동보다 경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문숙재·정영금, 1993).

자산형성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주로 가정의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들이다. 가계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김광석(1975)은 소득수준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가정구성원의 규모, 도시규모, 도시평균소득, 가구주 연령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했으나 박재윤, 조대경(1977)은 저축행위는 다원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했다. 배무기(1978)는 근로자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스로 총소득이 이웃보다 낮다고 생각할 수록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있었으며, 자가소유가구, 가구주의 직업이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인 경우가 저축율이 높으며 가족수가 적을 수록, 가계예산을 작성하는 가계, 저축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계, 매월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는 가계, 저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가계, 꼭 필요한 물자만을 구매하는 가계일 수록 평균 저축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근로자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박재윤(1977)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계가 저축율이 높았으며 생활방식이나 소비관습이 가계의 저축율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보고했다. 또한 주부의 저축에 대한 태도와 저축행동에 관한 송영주(1981)의 연구에 의하면 주부의 저축에 대한 태도는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수록 긍정적이었으며 저축에 대한 행동은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합리적이고 저축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정영숙(1983)은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 수록 저축율이 높으며 소득이 일정한 가정, 가계부를 쓰고 가계계획을 세우는 가정이 저축율이 높음을 보고 했다.

백설희(1984)의 가계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저축행동이 합리적이고 저축의 결정요인은 소득이

며 생활방식이나 소비습관은 가계저축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

조희금(1984)은 가정생활주기에 따른가계의 저축형태 분석에 의하면 형성기에 평균저축율이 가장 높고 후반기로 갈 수록 낮아지며 대학기에 가장 낮은 현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문숙재(1985)는 도시주부의 저축행동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변수보다는 사회심리적 변수인 저축의 필요성, 소비생활의 태도, 미래에 대한 전망이 더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순미(1987)의 금융자산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결혼기간이 짧을 수록 저축율이 높고 가족수가 증가할 수록 저축율이 낮으며 재산의 규모가 증대될 수록 저축율이 높고 미래에 대한 예견이 긍정적일 수록 저축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혜경(1990)의 연구에 의하면 자산증식방법에서는 50세 미만 집단이 50세 이상 집단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전문·관리직집단이, 소득이 많고 재산수준이 높을 수록, 더 적극적인 자산증식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가계의 자산형성에 대한 연구는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로서 관련된 변수로는 인플레이션, 이자율과 같은 외적인 요소 뿐 아니라 연령, 소득, 부, 위험에 대한 태도와 같은 가계 내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혔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의 설정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도시가정의 소득구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결혼당시와 현재의 자산상태는 어느 정도이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주부들의 자산형성 기여도는 어느 정도이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5부분으로 이루어졌다. 1부분은 가정의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연령, 학력, 직업, 가족수, 결혼년수, 첫자녀 연령, 보험 가입 여부, 월소득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2부분은 소득의 구성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소득의 원천을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이자 및 배당금, 임대료, 수증 및 보조,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남편과 부인이 금액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부분은 결혼당시의 자산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남편과 부인의 자산을 주택, 부동산, 토지, 유가증권, 예금, 기타로 분류하여 현재의 단순한 시장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응답하게 하였다. 4부분은 현재의 자산상태를 3부분과 같이 나누어 응답토록 하였으며 5부분은 이러한 자산형성에 주부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를 퍼센트로 주부자신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산지역 가정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고신대학교 가정관리학과 4학년 학생 6명이 1994년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350주부를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327부가 회수되었으며 내용기재가 부실한 9부를 제외한 318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PC Package를 이용하여 빈도, 평균, 백분율, 일원분산분석(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40대가 31.8%로 가장 높으며 50대가 20.4%로 가장 낮게 나타나 대체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학력은 고졸 이상이 45.3%이며 대졸이상은 35.5%로 대체로 학력수준이 높은 편이다. 직업은 판매·서비스직이 27.4%, 전문·관리직이 11.6%, 기술·사무직이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 인		N	%	비 고
연령	30 세 이 하	70	22.0	
	31 - 40 세	82	25.8	
	41 - 50 세	101	31.8	
	51 세 이 상	65	20.4	
학력	중 학 고 졸 업	61	19.2	
	고 등 학 고 졸 업	144	45.3	
	대 학 고 졸 업	113	35.5	
직업	전 문·관 리 직	37	11.6	*취업주부 47.8%
	기 술·사 무 직	28	8.8	
	판 매·서 비 스 직	87	27.4	
	전 업 주 부	166	52.2	
가족 수	2 인	33	10.4	
	3 인	94	29.6	
	4 인	119	37.4	
	5 인 이 상	72	22.6	
결혼 년수	5 년 이 하	73	23.0	
	6 - 10 년	44	13.8	
	11 - 20 년	97	30.5	
	21 년 이 상	104	32.7	
생활 주기	유 치 원	82	25.8	
	국 민 학 교	39	12.3	
	중·고 등 학 교	76	23.9	
	대 학 교	42	13.2	
	대 학 고 졸 업	45	14.2	
	결 혼	34	10.7	
보험	유	222	69.8	
	무	96	30.2	
월 소득	150 만 원 이 하	93	34.2	
	151-300 만 원	142	44.6	
	301-450 만 원	45	14.1	
	451 만 원 이 상	38	11.9	
계		318	100	

8.8%로 취업주부가 47.8%이며 이는 우리나라 92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41.3%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수는 4인이 37.4%로 가장 높으며 결혼년수는 21년 이상이 32.7%, 11-20년이 30.5%로 평균 14년으로 나타났다. 생활 주기는 첫자녀가 유치원 이하가 25.8%로 가장 높고 중·고등학교가 23.9%로 나머지 단계는 대체로 비슷하게 분포되었다. 보험가입은 69.8%이고 월평균 소득은 151-300만원이 44.6%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소득의 구성상태

조사대상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3,855,670원으로 94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701,300원의 2배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근로소득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와 더불어 부산지역이 항구도시, 상업중심의 도시로 취업주부가 평균보다 높고 부업소득, 재산소득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총소득의 구성상태를 살펴보면 남편의 소득은 2,531,350원으로 65.7%이며 주부의 소득은 1,324,370원으로 34.3%를 담당하고 있어 주부의 기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원천별 구성상태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근로소득이 2,287,100원으로 5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 및 부업소득이 874,680원으로 22.7%, 이자 및 배당금이 139,080원으로 3.6%, 임대료는 413,960원으로 10.7%, 수증 및 보조는 112,570원으로 2.9%, 기타 28,300원으로 0.8%를 구성하고 있다.

<표 2> 소득의 구성상태

소득의 종류	금액(만원)	%	비고
근로소득	228.710	59.3	
사업 및 부업소득	87.468	22.7	
이자 및 배당금	13.908	3.6	
임대료	41.396	10.7	
수증 및 보조	11.257	2.9	
기타	2.830	0.8	
계	385.567	100.0	*남편:253만135원

이와 같이 도시가구의 소득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남편(가장)에만 의존되는 것이 아니고 주부의 시장노동에 의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득의 원천도 종래의 90% 이상의 근로소득의 비중이 적어지고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결혼당시의 자산상태와 현재의 자산상태

조사대상자의 결혼당시의 자산상태는 현재

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조사한 결과 평균 4천4백6만5천원이며 이중 남편의 자산이 3천419만8천원으로 77.6%, 부인이 986만7천원으로 22.4%를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우리의 결혼관습이 남자는 자산이 되는 집이나 보석등을 준비하며 여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모품을 준비하기 때문에 결혼비용이 같더라도 대부분의 가정자산은 남편의 소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의 결혼당시 자산상태가 22.4%로 나타난 것은 결혼 출발부터 자산형성에 주부의 기여가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자산상태는 평균 2억5천967만6천원으로 결혼당시의 자산상태보다 5.9배정도 증가되었는데 남편소유의 자산은 2억2천826만1천원으로 87.9%를 차지하고 있어 결혼당시보다 10.3%의 비중이 증가했는데 비해 부인소유의 자산은 3천141만5천원, 12.1%로 결혼당시보다 10.3% 자산의 비중이 감소되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축적된 자산이 남편의 명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인소유의 자산이 감소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인의 최소 기여도는 결혼당시의 평균 자산상태 22.4%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산상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결혼당시와 현재의 자산상태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한 결과 결혼당시의 자산상태는 <표 3>과 같이 남편의 경우, 연령($P < 0.05$)과 월평균소득($P < 0.0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주부의 경우는 학력($P < 0.05$), 직업($P < 0.05$), 보험($P < 0.01$), 월평균소득($P < 0.0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결혼당시 남편소유의 자산상태는 연령이 40대인 가정이 가장 많은 자산상태를 보였고 50세 이상 가정은 가장 적은 자산상태를 보였다. 또한 주부소유의 자산은 대졸 이상의 가정이 가장 많은 자산상태를 보였고 취업주부중 전문·관리직 가정, 보험을 가입한 가정, 월평균소득이 높은 가정이 결혼당시 많은 자산상태를 보였다.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결혼당시의 자산상태

		(백만원)		
변인	자산상태	남편(D)	부인(D)	계(D)
연령	30 세 이하	23.771 A	14.485	38.257
	31 - 40 세	36.329 A	10.195	46.524
	41 - 50 세	50.990 B	8.445	59.435
	51 세 이상	16.646 C	6.692	23.338
	F 값	3.469 *	1.121	2.597
학력	중학교	22.590	6.213 A	28.803 A
	고등학교	30.631	6.819 A	37.451 A
	대학교	45.008	15.725 B	60.734 B
	F 값	2.108	4.383 *	3.708 *
직업	전문관리직	47.324	19.918 A	67.243
	기술사무직	28.785	13.392 A	42.178
	판매서비스직	28.344	4.080 B	32.425
	전업주부	35.253	10.066 A	45.319
	F 값	.619	3.399 *	1.506
가족수	2 인	26.515	18.424	44.939
	3 인	31.627	8.563	40.191
	4 인	40.714	9.865	50.579
	5 인	30.305	7.652	37.958
	F 값	.520	1.394	.427
결혼년수	5 년 이하	31.698	15.506	47.205
	6 - 10 년	35.181	7.181	42.363
	11 - 20 년	42.051	9.701	51.752
	21 년 이상	28.211	7.201	35.413
	F 값	.610	1.613	.670
생활주기	유치원	33.890	14.463	48.353
	국민학교	40.282	10.846	51.128
	중고등학교	46.723	7.184	53.907
	대학교 졸업	16.333	8.095	24.428
	결혼	36.177	10.822	47.000
F 값	1.243	.987	1.157	
보험	유무	39.549	12.459 A	52.009 A
	F 값	21.822	3.875 B	25.697 B
월소득	150 만 원 이하	26.000 A	6.279 A	22.279 A
	151 - 300 만 원	19.232 A	4.556 A	23.788 A
	301 - 450 만 원	35.488 A	15.288 B	50.777 A
	451 만 원 이상	108.657 B	32.078 C	140.736 B
	F 값	17.224***	13.397***	24.531***

그러나 현재의 자산상태는 <표 4>와 같이 남편소유의 자산은 연령($P < 0.001$), 결혼년수($P < 0.01$), 생활주기($P < 0.05$), 월평균소득($P < 0.0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으며 부인소유의 자산은 월평균소득($P < 0.001$)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남편의 경우 연령이 많고 결혼년수가 많을 수록 많은 자산

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생활주기에 있어 첫자녀가 결혼후, 월평균소득이 높은 가정에서 많은 자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해 부인의 경우는 월평균소득이 높은 가정에서만 부인소유의 자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현재의 자산상태

		(백만원)		
변인	자산상태	남편(D)	부인(D)	계(D)
연령	30 세 이하	50.990 A	21.800	72.700 A
	31 - 40 세	109.292 A	15.926	125.219 AD
	41 - 50 세	272.376 B	45.168	317.544 B
	51 세 이상	500.800 C	39.938	540.738 C
	F 값	7.994***	2.032	8.045***
학력	중학교	280.918	40.311	321.229
	고등학교	165.513	17.993	183.506
	대학교	279.796	43.716	323.513
	F 값	1.392	2.927	1.847
직업	전문관리직	163.973	55.324	219.297
	기술사무직	139.678	19.035	158.714
	판매서비스직	209.448	18.689	228.137
	전업주부	267.391	34.843	302.234
	F 값	.585	1.681	.585
가족수	2 인	193.848	50.030	243.878
	3 인	142.021	16.840	158.861
	4 인	206.823	31.638	238.462
	5 인	392.055	41.541	433.597
	F 값	2.469	1.571	2.601
결혼년수	5 년 이하	68.397 A	22.164	90.561 A
	6 - 10 년	78.250 A	19.000	97.250 A
	11 - 20 년	237.886	25.130	262.917 A
	21 년 이상	394.961 B	49.115	444.076 B
	F 값	5.356**	2.015	5.684***
생활주기	유치원	73.134 A	20.561	93.695 A
	국민학교	96.974 A	23.000	119.974 A
	중고등학교	230.631 A	24.328	254.960 A
	대학교 졸업	238.433 A	47.333	286.166 A
	결혼	232.911 A	42.555	275.466 A
F 값	728.470 B	48.676	777.147 B	
F 값	6.505***	1.209	6.350***	
보험	유무	209.198	36.860	246.058
	F 값	272.343	18.822	291.676
월소득	150 만 원 이하	112.741 A	8.139 A	120.881 A
	151 - 300 만 원	143.443 A	13.866 A	157.309 A
	301 - 450 만 원	363.422 B	56.288 B	419.711 B
	451 만 원 이상	667.868 C	124.500 C	792.368 C
	F 값	10.127***	21.742***	13.668***

* $p < 0.05$, ** $p < 0.01$, *** $p < 0.001$

이와 같이 결혼당시의 자산상태는 강혜경 (1990)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으나 현재의 자산상태중 부인소유의 자산은 소득이 높은 가정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 점은 소득이 많은 가정에서 재산분산을 위해 부인명으로 자산을 이전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 주부들의 자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가정의 자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전자산 2억5천967만6천원 가운데 주부의 자산소유는 12.1%로 결혼당시의 22.4%보다 10.3%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주부들 자신이 평가한 가정의 자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주

<표 5> 주부의 자산형성 기여도 (%)

변인	자 산 종 류	주 택(D)	부 동 산(D)	토 지(D)	유가증권(D)	예 금(D)	기 타(D)
연령	30 세 이 하	31.28 A	4.57 A	0.71	10.71	40.28	14.28
	31 - 40 세	33.17 A	4.26 A	5.72	9.14	36.09	11.46
	41 - 50 세	43.96 B	16.73 B	7.34	10.09	39.01	5.00
	50 세 이 상	42.61 B	10.61	6.33	6.61	28.92	7.50
	F	값	4.827 **	5.480 **	2.175	.413	1.718
학력	중 학 고	47.82 A	8.03	10.98 A	10.49 AB	40.00	10.16
	고 등 학 고	31.71 B	6.73 A	2.29 B	4.02 A	32.29	4.73 A
	대 학 고	40.95 A	14.07 B	5.84	15.31 B	39.91	14.45 B
	F	값	9.216 ***	3.081 *	5.859 **	7.886 ***	2.21
직업	전 문 관 리 직	49.45 A	8.10	3.51	18.64	51.62 A	14.86 A
	기 술 사 무 직	43.92	15.35 B	3.92	10.35	54.64	19.64 A
	판 매 서 비 스 직	32.52 B	3.79 A	4.71	8.62	32.06 B	2.32 B
	전 업 주 부	37.53 B	11.98 B	6.08	7.34	32.34 C	9.81 A
	F	값	4.049 **	2.810 *	.342	2.461	7.486 ***
가족수	2 인	33.03 B	0.60 A	1.51	15.45	40.60	9.09
	3 인	28.29 B	4.14 A	3.61	7.87	31.17	7.12
	4 인	41.59 A	10.75 B	7.89	10.50	40.25	11.78
	5 인	47.50 A	18.88 C	4.58	6.25	35.27	7.88
	F	값	8.821 ***	7.069 ***	1.823	1.414	1.597
결혼년수	5 년 이 하	30.68 A	4.65 A	1.50	11.50	38.90	11.64
	6 - 10 년	30.09 A	5.90 A	3.40	8.86	32.50	13.86
	11 - 20 년	38.14 A	8.45 A	6.80	7.21	33.19	7.91
	21 년 이 상	46.34 B	15.67 B	7.11	9.80	39.51	6.79
	F	값	6.525 ***	3.675 *	2.047	.498	.993
생활주기	유 치 원	29.63 A	13.29 A	0.85 A	11.22	39.75	12.19 B
	국 민 학 고	40.51 B	10.51	8.20 B	13.33	38.46	17.43 C
	중 고 등 학 고	35.78 AB	8.94 A	6.44 AB	8.81	32.10 A	6.53 AB
	대 학 고	45.23 B	11.66	0.95 A	4.52	27.85 A	1.90 A
	대 학 고 졸	46.44 B	19.55 B	12.22 C	10.00	49.77 B	11.33 B
	결 혼	41.17 B	9.4	5.58 AB	5.88	29.11 B	4.84 AB
F	값	3.504 **	2.776 *	3.581 **	.860	3.025 *	2.491 *
보험	유 무	42.56	11.7	6.2	9.64	39.82	11.67
		27.81	4.6	2.9	8.43	28.75	3.57
	F	값	21.638 ***	5.686 *	2.522	.178	7.984 **
월 소득	150 만 원 이 하	25.32 A	2.36 A	0.53 A	5.05 A	25.48 A	5.54 A
	151 - 300 만 원	35.74 B	5.70 A	5.07 B	7.32 C	34.57 C	5.91 B
	301 - 450 만 원	55.53 C	19.33 B	10.00 BC	20.66 B	58.44 B	16.36 B
	451 만 원 이 상	57.67 C	30.26 C	11.57 C	13.42	44.47 D	22.36 B
	F	값	25.129 ***	18.048 ***	5.509 **	5.592 ***	12.635 ***

* p<0.05, ** p<0.01, *** p<0.001

택에 대한 주부의 기여도는 평균 38.11%로 가장 많은 기여도를 나타냈고 다음은 예금으로 36.5%, 부동산 9.5%, 유가증권 9.3%, 기타 9.2%, 토지 5.2%순으로 자산의 기여도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자산형성 대한 주부의 기여도를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첫째, 주택에 대한 주부의 기여도는 연령($P<0.01$), 학력($P<0.001$), 직업($P<0.01$), 가족수($P<0.001$), 결혼년수($P<0.001$), 생활주기($P<0.001$), 월평균소득($P<0.001$)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40대 이상인 가정이 44.0%로 가장 높았으며 학력이 낮은 가정이 47.8%, 전문·기술직의 주부가 49.4%, 가족수가 5인 이상 가정이 47.5%, 결혼년수가 21년 이상인 가정이 46.3%, 첫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한 시기의 가정이 46.4%, 보험에 가입한 가정이 42.6%, 월평균소득이 451만원 이상의 가정이 57.7%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동산에 대한 기여도는 모든 변인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P<0.01$), 학력($P<0.05$), 직업($P<0.05$), 가족수($P<0.001$), 결혼년수($P<0.05$), 생활주기($P<0.05$), 보험($P<0.05$), 월평균소득($P<0.0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즉 연령에 있어 40대 가정이 16.7%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나타냈으며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의 가정이 14.1%, 직업에 있어 기술·사무직 주부가 15.4%, 가족수가 5인 이상인 가정이 18.9%, 결혼년수가 21년 이상인 가정이 15.7%, 생활주기에 있어 자녀가 대학교 졸업후의 가정이 19.5%, 보험에 가입한 가정이 11.7%, 월평균소득이 451만원 이상의 가정이 30.3%로 주부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토지에 대한 주부의 기여도는 가장 낮은 수준의 기여도를 보였으나 학력($P<0.01$), 생활주기($P<0.01$), 월평균소득($P<0.05$)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력은 중학교 이하 가정이 11.0%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생활주기에 있어 첫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한 시기의 가정이 12.2%, 월평균소득이 451만원 이상의 가정이 11.6%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넷째, 유가증권에 대한 주부의 기여도는 직업($P<0.001$), 월평균소득($P<0.0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학력이 대졸이상의 가정

이 15.3%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나타냈으며 월평균소득이 301-450만원 가정이 20.6%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예금에 대한 주부의 기여도는 직업($P<0.001$), 생활주기($P<0.05$), 보험($P<0.01$), 월평균소득($P<0.0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기술·사무직 주부가 5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주기에 있어서는 첫자녀가 대학교 졸업한 가정이 49.7%, 보험을 가입한 가정이 39.8%, 월평균소득이 301-450만원 가정이 58.4%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여섯째, 기타 자산에 대한 주부의 기여도는 학력($P<0.01$), 직업($P<0.01$), 생활주기($P<0.05$), 보험($P<0.01$), 월평균소득($P<0.0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주부의 학력은 대학교 이상인 가정이 14.4%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직업에 있어 기술·사무직 가정이 19.6%, 생활주기에 있어서 첫자녀가 국민학교 시기인 가정이 17.4%, 보험에 가입한 가정이 11.6%, 월평균소득이 451만원 이상인 가정이 22.4%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주부 자신이 평가한 자산형성에 대한 주부의 기여도는 주택에 대해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으며 모든 독립변인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예금 및 금융자산에 대한 기여도는 학력이 낮거나 높은 가정이, 직업에 있어서는 전문·관리직이나 기술·사무직에 종사하는 가정이, 생활주기는 첫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가정, 보험에 가입한 가정, 월평균소득이 301-450만원 가정에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에 따른 현재 자산상태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6>과 같이 $P<0.01$ 수준에서 연령, 결혼년수, 생활주기, 월평균소득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도시가정의 자산상태는 주부의 연령이 많을 수록, 결혼년수가 많을 수록, 생활주기가 높은 단계일 수록, 월평균소득이 많을 수록 많아지므로 자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계산할 때는 연령, 결혼년수, 생활주기, 월평균소득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6> 변인과 현재 자산상태와의 상관관계

변인	자 산 상 태(상관계수)
연령	.2585 **
학력	.0234
직업	.0619
가족수	.1214
결혼년수	.2177 **
생활주기	.2567 **
보험	.0322
월평균소득	.3209 **

V. 요약 및 결론

도시가정에서 자산형성에 대한 주부의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지역 주부 318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의 구성상태를 살펴본 결과 월평균소득은 3,855,670원으로 남편은 2,351,350원, 65.7%를 담당하고 있으며 부인은 1,324,370원으로 34.3%를 담당하고 있어 가사노동가치외에 시장노동 소득에도 높은 공헌을 하고 있다.

둘째, 결혼당시와 현재의 자산상태를 비교한 결과 결혼당시의 자산상태는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평균 4천406만5천원이었다. 이 중에서 남편이 3천419만8천원, 부인이 986만7천원으로 부인이 22.4%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자산상태는 평균 2억5천967만원으로 결혼당시 보다 5.9배가 증가되었다. 즉 남편소유의 자산은 2억2천826만원, 부인소유의 자산은 3천141만5천원으로 결혼당시 보다 명목가치는 남편, 부인 모두 증가 되었으나 소유율에 있어서 남편은 10.3% 증가되었으나 부인은 10.3% 감소되었다. 이는 결혼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산이 축적되면 우선적으로 남편 명의로 하기 때문에 주부소유의 자산은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자산상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결혼당시의 자산상태는 남편의 경우 연령이 40대인 가정, 월평균소득이 높은 가정에서 많은 자산상태를 보였고 주부의 경우는 학력이 높고, 전문·관리직 주부, 보험에 가입한 주부, 월평균소득이 높은 주부가 많은 자산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의

자산상태는 남편의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결혼년수가 길수록, 생활주기가 높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자산소유가 많고 부인의 경우는 월평균소득만이 자산소유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실질적인 자산형성 요인이 되는 주부의 취업이나 가사노동의 가치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현상이다.

네째, 주부들의 자산형성 기여도를 주부 자신이 주관적 평가에 의해 조사한 결과 주택의 경우 38.1%, 예금은 36.5%로 나타났으며 부동산 9.6%, 토지 5.2%, 유가증권 9.3%, 기타 9.2%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도시주부의 자산형성 기여도는 전업주부의 경우, 최하 결혼당시의 자산소유 22.4%에서 연령, 결혼년수, 생활주기, 월평균소득 등을 고려하여 부인의 가사노동 가치를 최고 50%까지 인정해야 하며 취업주부의 경우는 가사노동과 취업노동으로 남편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하기 때문에 50% 이상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문제가 발생하면 재산명의와 관계없이 결혼후 축적된 재산은 전업주부의 경우 김선희(1994)연구에 의한 생애가사노동의 가치 계산에 의한 가사노동의 가치를 고려하여 최고 50%를, 취업주부의 경우는 가사노동과 취업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50% 이상으로 분할해야 평등한 분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경(1990), "도시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에관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28권, 3호, pp. 87-103.
-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편, 신경제학사전, 대학당, p. 1302.
- 김광석(1975) "한국가계의 저축형태", 한국개발연구원연구총서 4집, 한국개발연구원.
- 김선희(1991),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선희(1994), "주부의 생애가사노동가치의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2권 5호, pp. 55-66.
- 김순미(1987), "도시가계의 금융자산 선택 행동에 관한 연구: 도시 중산층 가계를 중심으로"

- 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애실(1985), “가사노동의 경제적가치”, 여성 연구 3권 4호, pp.25-47.
- 김영갑(1991), “재산분할권청구권”, 인권과 정의 7, pp. 52-63.
- 김외숙·이기영·최은숙(1992), 가족자원관리,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
- 김정희(1993),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경제적 가치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제 31권, 4호, pp. 37-52.
- 문숙재(1985), “도시주부의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 논총 제 46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pp. 237- 239.
- 문숙재(1986), “기술발전과 가정”, 제6회 아여연 심포지움, 기술발전과 여성,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pp. 46-58.
- 문숙재(1991),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9권 제 2호, pp. 285-302.
- 문숙재·정영금(1991), “주부의 사고발생시 손해 배상액 산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29권 제 4호, pp. 131-150.
- 문숙재·정영금(1993), “재산형성에 대한 주부의 기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1권 1호, pp. 13-24.
- 박재운(1978), “서울 비근로자가계의 저축형태”, 경제논집 제 17권 2호, 서울대 경제연구소, pp. 197-235.
- 배무기(1978), “서울 근로자가계의 저축형태”, 경제논집 제 17권 2호, 서울대 경제연구소, pp. 161-196.
- 백설희(1984), “도시가계의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영주(1981), “서울시 주부의 저축에 대한 태도와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기철·신용철(1985), 새 우리말 큰 사전, 서울:삼성출판사.
- 정영금(1989), “가정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 순(1993), 경제학원론, 서울:법문사.
- 정영숙(1983), “마산지역 가계저축형태에 관한 조사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주·문숙재(1992), “가계투자행동의 인과적 모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 30권 1호, pp. 219-236.
- 조대경·박재운(1977), “한국인의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보고서 I.
- 조선일보(1995), 5. 8. P.6.
- 조희금(198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저축형태분석:대구시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권 1호, pp. 57-66.
- 최명숙(1986),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추정”,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1993), 한국통계연감, 통계기획원.
- Becker (1976),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astwood, D.(1986), Consumer Economics, Boston : Allyn & Bacon.
- Reid, M.(1934), Economics of Household Produc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